
급성 심근 경색증의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시 Percusurge GuardWire 시술의 유용성

원주기독병원 진단방사선과

박일형, 김승년, 이길원

목 적 : 급성 심근 경색증의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시 관동맥 조영술상 혈전이 많은 병변에서의 Percusurge GuardWire 시술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중 일차성 관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환자 중 관동맥 조영술 상에서 관동맥 시술 후 혈류장애의 고위험군(경색혈관의 abrupt cut-off 모양, floating 혈전, 지속적인 조영제의 정체를 나타내는 혈전, 참고혈관 보다 혈전의 길이가 3배 이상의 혈전, 완전폐쇄의 근위부의 5 mm 이상의 혈전, 참고혈관이 4 mm 이상인 혈관)인 30예를 대상으로, 16예는 일반적인 일차적 관동맥 중재 술기에 의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대조군), 14예는 PercuSurge GuardWire System을 이용하여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시술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군과 대조군에서 관동맥 중재술 전 후의 참고혈관직경, 최소혈관내경, TIMI 혈류, myocardial blush score를 측정하였고 ST분절의 상승에 대한 관해를 평가하였다.

결 과 : 양군의 임상적, 관동맥 조영술상의 특징은 유사하였으며, 대상군의 전예에서 PercuSurge GuardWire System을 합병증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대상군 14예 중에 14명 모두에서 시술 후 TIMI 3혈류를 획득하였으며, 대조군은 16명 중 11명(69%)이 TIMI 3혈류를 얻어 관동맥 중재술의 성공이 양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 Myocardial blush는 대상군에서 grade 0, 1은 없었으며 grade 2는 6예, grade 3는 8예였다. 대조군에서는 grade 0은 5예, grade 1은 4예, grade 2는 6예, grade 3는 1예였으며, 양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2$) 관동맥 중재술 후 2시간 안에 시행한 심전도상 ST분절의 50%이상의 관해는, 대상군은 79%(11/14)에서, 대조군은 31%(5/16)에서 보였으며, 양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2$) 입원 기간 중 주요 심혈관 합병증은 대상군에서는 없었으며, 대조군에서는 심인성 쇼크에 의한 사망이 2명이었고, 재발성 심근 경색이 1명이었다.

결 론 :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에서 관동맥내 혈전이 많은 선택적인 병변에서 Percusurge GuardWire System 시술은 관상동맥의 혈류 뿐 아니라 심근 재관류를 호전시키며 병원내 심혈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다.